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당선

-유권자 9,025명 참가...투표율 58%
-총 투표수의 35.8%... 3216표 획득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전국 1만5500여명 변호사 유권자들의 표심은 전관 출신도, 대형로펌 출신도 아닌 순수 재야 출신에게로 향했다. 이로써 현 위철환 협회장이 이어 순수 재야 출신인 보통 변호사가 다시 협회장에 선출됐고, 이진강 협회장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이 다시 협회장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하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8992표(무효 33표 제외) 중 3216표(35.8%)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하 당선자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1월 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이날 본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해짐에 따라 19일로 예정돼 있던 결선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는 1차 투표 결과 유효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하창우 당선자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소순무(64기) 후보와 박영수(63기) 후보는 각각 2601표(28.9%)와 2572표(28.6%)를 얻어 60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차철순(63기) 후보는 603표(6.7%)를 얻는데 그쳤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하창우 후보가 당선한 이유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청년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하 후보와 소순무 후보 중 하창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폐지를 주장한 박영수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창우 당선자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변협회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됐다며 모든 변호사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화합과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은 꼭 존치 시키겠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내보였다. 하창우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1)사법시험 200명, 변호사시험 800명으로 변호사 배출 수 제한, (2) 변협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3) 합의부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4)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개업금지, (5) 검사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남 남해 출신인 하 당선자는 부산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 공보이사, 서울변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해 변호사단체 회무에 밝으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대한변협회장 후보 선거에서 신영무 전 협회장에 패배해 분루를 삼켰고,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는 김현 변호사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약속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국 1만5544명의 유권자 중 9025명이 참가해 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주가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 79.3%, 울산 75.0%, 강원 72.9% 등 지방변호사들의 투표율이 높았다. 반면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이 51.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투표율도 55.4%에 머물렀다

(법률신문 인용)